

사설

‘첫 삽질’ 하는 자세로 거듭나길

—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기공식에 부쳐

조계종단의 3대사업은 도제·역경·포교다.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도제양성이라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다. 승려교육을 위해서는 아가를 갖지 않아 불교가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은 백번 타당하다.

스님들은 부처님의 거룩한 해명을 계승하며 동시에 세간 사람들의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스승은 존경받을 수 있을 때 스승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다. 그런 점에서 일반 교육계의 스승보다 성직자의 역할까지 겸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처님에 버금가는 위와 지혜 그리고 복덕을 갖추도록 교육되어야 한다. 교육은 수행의 초석과 같다는 점에서 엄격한 체제와 프로그램, 그리고 시설이 갖추어져야만 상응하는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난 15일 종단의 중요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는 중앙승가대학이 제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김포로 확장 이전하는 기공식을 갖고 첫 삽질을 했다. 차제에 중앙승가대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학교 발전을 위해 몇 가지 고언을 하고 싶다.

우선 승려전문교육기관인 중앙승가대학이 교육의 틀을 완전히 갖추기 위하여 넓은 교육공간을 확보하여 확장이전하는 일은 부처님의 해명을 더욱 빛나게 하는 일이란 점에서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학교 이전 비용이 수백억원이나 예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회의론적 여론도 있다. “과연 조계종의 재정현황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을까?” 꼭 학사를 이 전해야만 하나? 그래서인지 한동안 뜸했던 삼보정재의 처분이란 바람직하지 않은 종단풍토를 재연하지 않음

까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종단의 교육사업이 중앙승가대학 하나로 만족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동국대학교 지방승가대학(강원) 그리고 대가교육원 내지 상설 승려 재교육기관 등을 내세워 투자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이미 정부와 합의되었으며, 교육계에서도 교육의 명분을 내세워 학사 이전불사가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뒷걸음질 수는 없지 않은가. 다만 승가대는 이번 기공식을 계기로 이념교계 내외의 우려와 비판을 결려하게 수용하며 거듭날 수 있는 자성의 기회로 삼길 당부하고 싶다.

한편 승가대학은 수행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윤장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비구·비구니·사미·사미니가 여과없이 교육받는 것에 대한 부작용도 고려해야 할 것이며, 학교를 빌자하여 윤장을 무시하고 출가 수행자의 본 바탕을 지키지 못하거나 그 권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승가대학에서 교육받는 스님들은 학생으로 보다는 수도하는 스님으로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교육과정도 일반대학과 같아서는 안될 것이다. 전통과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수행자에 맞는 교과목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학교의 운영도 종단이 출자하는 것에 비해 통제력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동문의 힘이 필요 이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승가대학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반드시 돌이켜 보아야 할 점이다. 종단이 지원하는 만큼 종단의 앞날을 생각하여 철저한 점검으로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길 바란다.

열린 마당

여성불자 사회참여

불교신자의 80% 이상은 여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북경 세계여성회의 NGO포럼 종교분과에는 단 1명의 불교 대표도 참가하지 않아 여성불자의 사회

참여가 얼마나 저조한가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이번 북경 세계여성대회를 계기로 여성불자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본다.

활성화 방안—장휘옥 (동국대 강사)

세상은 급변하고 있다. 유럽도 아시아도 우리나라도 우리의 국민 의식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 속에서 좀처럼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불자들의 불교에 대한 의식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 불교신자들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성 불자들의 의식수준이 변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기복불교 탈피 의식의 잠 깨어나야 불교 생활화가 '나눔' 실천의 지름길

다.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대부분의 여성불자들은 불교계의 여건이 열악함을 먼저 내세우고 있지만, 여성불자들의 불교에 대한 인식이 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근래에는 여성불자들이 불교 교양강좌를 들으면서까지 불교에 대해 알고 노력하고 있지만 불자들의 불교에 대한 의식 수준은 거의 답보상태에 있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불교를 미신적이고 맹목적으로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나 지금이나 거의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불교 이해의 수준이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한 여성불자들의 사회참여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불교가 생활 그 자체가 되면, 남의 고통이 바로 나의 고통이므로 스스로 고뇌의 대상으로 나가 중생구제에 앞장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성불자들의 불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의식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불교에 대해 의식수준이 높아질 때, 여성불자들은 한층 불교를 위해, 우리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고 저절로 눈이 보기에 될 것이다.

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여성계의 주요 흐름은 타종교여성단체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타종교의 경우 30년 전부터 전문 교육기관, 단체를 통해 여러 단체가 초종교적으로 사회 각분야에서 활동중이다.

따라서 불교계도 기존단체를 중심으로 여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각 단체간의 이해관계를 초월한 교류와 협력·지도자 양성을 위한 중간 차원의 관심과 지원 등의 과제해결을 통해 여성불자들의 사회참여와 활동영역을 넓혀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와함께 불교지도자들의 의식회대와 여성불자들의 잠재적 역량 개발, 각 분야에 여성불자들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의 장 마련도 요청되고 있다.

교계 활동현황과 문제점

그동안 여성불자들은 사찰, 신명단체들을 통해 고아원, 양로원 등 우리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꾸준한 봉사활동을 해 왔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여성불자들이 봉사라는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시야를 갖고 대 사회적인 활동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여성불자들은 정신대 문제, 성폭력문제, 환경운동 등에 관심을 갖고 부분적으로 활동영역을 넓혀가고는 있지만 아직 보조자적인 입장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북경 세계여성회의 NGO포럼에도 타종교의 경우 여러단체가 참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으나 불교계는 환경

분과에 성덕스님만이 참여한 사실도 그 단적인 예다. 현재 교계에는 대한불교부인회, 한국여성불교연합회, 대한불교장각여성회, 한국불교 전국여성법회, 여성불교회, 불교 어머니회, 부산여성불자회, 부산불교 여성인민협회, 경원련

대부분 봉사단체 활동 '운영 정체상태' 교육프로개발·참여영역 확대 등 시급

여성위원회의 등이 여성불자 단체로서 활동하고 있다. 개중에는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미약한 조직체와 운영으로 정체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다수의 여성불자들은 불교계 여성단체에 대해서 그 존재자체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참여하지 않고 있어 이들

시론

건강하게 사는 법 아시나요

최근 의료공단의 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및 사립학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질병 유무조사에서 대상자의 3분의 1 이상(37%)이 건강하지 못하고 특히 50대는 절반이상(53.2%)이 각종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조사대상자가 적어도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인데도 이 정도이니 일반국민들의 건강은 더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더구나 요즘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보험(국민개인보험)이라는 제도조차도 되어 있고 현대의학의 최첨단장비를 위시하여 우수한 치료방법도 이용할 수 있으며 그간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국민의 생활도 많이 윤택해져 국민의 건강에 대한 인식도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 평균수명도 60~70세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볼 때 건강하지 못하는 원인을 단순히 자기건강에 대한 무관심과 태만(일부 의료계의 주장)이라고만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고금동서를 통해 사람은 생노병사(生老病死)를 면할 수 없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기는 어렵고 소위 무병장수는 어디까지나 이상(理想)이지 현실은 아니다. 현대의학에서 본 건강의 개념(概念)은 세가지 차원 즉 육체적, 정신적 및 사회환경적인 안녕(安寧)상태에 있음을 건강이라고 정의(定義)해 놓고 있다.

위의 세가지 측면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현대인 건강 이상 37% 따라서 근래 우리가 경험하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사회문화적인 변동은 생활환경과 의식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각종 공해를 초래하고 우리들에게 각종 불건강을 일으키게 했다. 개인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건강관리를 한다 하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환경에 더욱더 관심과 이해를 높여야 한다.

공해(公害)는 대개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물질적 공해로, 또 하나는 정신적 공해로, 물질공해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공해, 환경 파괴 등에 뒤따르는 각종 오염원이 여기에 속하며 이는 무엇보다도 산업화, 공업화에 따른 부산물이다. 따라서 범국가적 차원의 관리와 예방조치가 철저해야겠다. 다음은 소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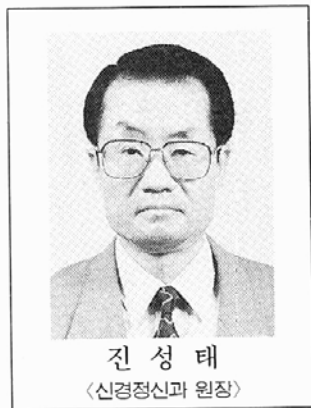
정신 공해다. 여기에는 각종 스트레스가 해당된다. 산업화, 도시화, 생활환경의 변화 등은 여러가지 정신적 갈등, 불안, 초조 등을 초래한다. 이러한 공해에 우리는 많은 사고(특히 자동차)를 경험하여 자동차사고왕국이란 불명예스러운 말도 듣고 있어 '인명은 재차'(人命在車)라 한 정도로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수가 많다.

모든 생명체는 한 뿌리

그리고 각종 산업재해(産業災害)가 늘고 있고 환경과 파괴가 개발이라는 명목에 자행되고 있다. 또 전세계적으로 종전에 없었던 신종질병(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이 만연되고 있으며 과거에 없던 기후 변화 등 자연환경의 이변을 경험하고 있고 예년자라는 조만간 지각의 변동으로 인한 지구의 큰 변화를 예측하기도 한다.

이상의 모든 환경변화는 필연적으로 우리 인체에 이상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불교에서는 천지동간(天地同根), 만물일체(萬物一體)를 말한다. 지구가 없으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중생)도 없게 마련이다.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자기 몸을 해치는 결과를 볼 듯 보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어리석은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연(緣起)적 관계를 갖는 업(業)의 복합체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세 살 때가 파리는 풀이 지금의 형국(形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 때일수록 우리는 대승불교의 심오한 사상을 지체로 삼아 업집착을 소멸하고 지혜를 밝혀 현재의 고통을 극복함은 물론 더 나아가서 질병과 생노병사가 없는 세계를 업과 운회(運會)를 초월한 경지-우주상생의 참된 근원(心源)에 이르도록 다 같이 노력할 때 영원한 생명을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불자들은 그 어느 때 보다 불교를 생활화하여 생활속에서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생활불교, 실천불교, 대중불교가 되도록 다같이 힘써야겠다. 체력은 곧 국력이다. 이것은 사회를 건강하게 지탱해 주는 기본요소가 국민 각자의 건강임을 말해준다. 이따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건강 증진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건강강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청정하고 바르게 살라는 마음의 건강도 중요함을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진성태 <신경정신과 원장>

현대만평



집은 네가 잘...

사랑 넘치는 환한 세상 만들기 「무료강좌」

1995년 가을학기

제3회

자원봉사 시민대학개설안내

- 1) 길동 관음의 집 개소식을 알립니다.
2) 제3회 자원봉사시민대학개설
자비와 봉사의 정신으로 병든이, 길 잃은이 외롭고 가난한 이들의 등불이 되고 어진 벗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선한 잠재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곧 연락주시요.
한 사람의 선한 뜻은 우주의 장엄한 아름다움입니다.

- 교육일시: 1995.9.25~12.15까지
교육장소: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사무실
접수문의: 총로사무실 ☎ 723-6258~9
접수기간: 1995.9.1~9.25까지
교육비: 무료
차량안내: 2, 8, 20, 84, 205, 331, 543 (종로경찰서 하차)
(직석버스) 8, 84, 205-1, 543 (종로경찰서 하차)
(지하철) 3호선 안국역 하차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96-21 회관과 3층) (종로경찰서 부근)

전문봉사시대를 준비하는 자원봉사자교육

Table with 4 columns: Course Name, Dates, Description, and Contact Info. Includes courses like 'Buddhist Basic Education', 'Buddhist Environmental Education', 'Buddhist Social Education', and 'Buddhist Cultural Education'.

불교자원봉사연합회